

# 건설 상품이 전해주는 인류 이야기

김원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ontkim@cerik.re.kr

건설 상품은 인류와 함께 해왔다. 각 시대의 역사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이 건설 상품에 담겨 있다. 인류는 건설 상품을 통해 더 큰 도전을 추구해 왔고, 그 도전의 결과로 인류는 더욱 더 강해졌다. 건설 상품은 막혀 있었던 소통을 뚫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류의 발전을 이끌었다. 도시라는 복합 건설 상품이 개발되어, 인류의 복지 증대에 기여했다. 건설 상품은 공간 편집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를 주도했다. 이와 같이 건설 상품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건설 상품이 품고 있는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인류의

모습을 되짚어 본다.

## 역사와 종교

건설 상품에는 당시대의 정치, 종교, 신념 등이 투영되어 있다. 4,500년 전 건설된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 모습뿐만 아니라 통치 기술까지 가늠할 수 있다. 6,7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은 기원전 춘추시대에서부터 중국의 역대 왕조의 역사를 함께 보낸 유적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에서는 고대 문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 콜로세움,



만리장성.

판테온, 세고비아의 수도교는 로마의 시대정신이 녹아져 있으며, 불국사와 석굴암에는 호국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중국의 자금성은 명과 청 시대의 궁정 생활과 의식 구조를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 베르사유 궁전은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권의 상징으로 한 시대의 번영과 쇠락의 중심에 서 있다. 종교 건축물은 신앙과 예술, 그리고 기술의 조합으로 영적 체험의 공간을 제공한다. 비잔틴 시대의 성소피아 성당,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피렌체 대성당,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는 신과 인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 도전과 기술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은 세계 최고(最高)를 향한 마천루 건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완공되어 40여 년 간 최고 높은 건물로 명성을 얻었고, 1974년 완공된 시어스타워는 30여 년 간 최고 건물의 자리를 지켰다. 이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워, 타이베이101에 이어, 현재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가 가장 높은 마천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쟁은 높이뿐만 아니라 더 긴 교량, 더 깊은 터널, 더 큰 댐으로 숨 가쁘게 진행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대교, 스위스 고타드 베이스 터널, 중국의 쑤샤 댐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대담한 도전은 사막에서도 펼쳐진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된 후버댐은 미국인의 프론티어 정신의 상징물로 각인되어 있다. 인공 물길을 만드는 리비아 대수로 사업은 한국인이 창조한 토목 신화로 손꼽힌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건설인의



부르즈 칼리파.

도전 또한 녹록치 않았다. 인천대교는 바람, 안개, 풍랑, 추위, 더위,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한 빠른 유속과 투쟁하여 만들어낸 역작이다. 인류의 도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또 더 좋은 기술의 탄생을 가져왔다. 세계 최초의 강철 교량인 스코틀랜드의 포스 브리지, 침매 터널 기술의 산실 가덕 해저 터널, 해양 에너지의 신기원 랑스 조력 발전소가 그러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만 5천여 장의 각기 다른 외부 마감 패널이 사용되어야 했던 비정형 건축물로서,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고 국내 건축 기술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상품이다. 이처럼 첨단



인천국제공항.

융합 기술로 더욱 대담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 소통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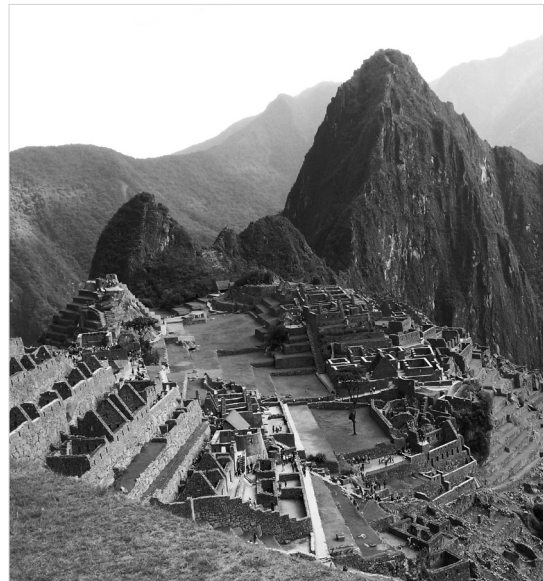
지역과 국가 간의 소통이 발전으로 이어짐을 터득한 인류는 새로운 소통로를 찾아 왔고, 그 중심에는 도로, 철도, 운하, 공항과 같은 건설 상품이 존재한다. 십나라를 유럽대륙에 편입시킨 유로터널, 일본 열도를 잇는 세이칸터널,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외레순 대교는 바다를 극복한 소통의 사례이다. 뱃길이 막히면 육지를 뚫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그러하다. 지구 둘레의 1/4을 달리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는 물류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길이기도 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성장 신화의 모멘텀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원활한 교통망의 구축은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한강과 서해를 잇는 새 물길인 경인아라뱃길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190여개 도시로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은 최고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하늘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3단계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이순간도 새로운 소통의 돌파구가 될 건설 작업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것이다.

### 도시와 환경

도시는 인류가 흘린 피와 땀의 탄생물이다. 2,600여년 전 바위산에 둘러싸여 접근조차 쉽지 않은 고대 도시 페트라는 포장도로와 상수도를 포함한 기반 토목 시설과 각종 문화 건축물로 인류를 유인하였다. 잉카 제국은 불가사의한 석축 기술로 해발 2,280m에 위치한 공중 도시 마추픽추를 탄생시켰다. 네덜란드의 북해 방조제는 무려 800년 동안 네덜란드인이 거친 북해의 파도와와의 사투 끝에 완성시킨 것이다. 물 위에 세워진 도시 베네치아는 척박하여 버려진 땅을 개척해



마추픽추.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지금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낸 산물이며, 침수로부터 베네치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 수도 주베일에 위치한 산업항은 우리나라 건설인들이 패기와 지혜로 완공시켰다. 거주지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과 어울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다. 영국에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저탄소 녹색 주거의 모범 마을 BedZed를 만들었다. 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제로에 도전하는 마스다르 시티도 있다. 오래전부터 도시인이 되기를 희망했던 우리 인류가 살게 될 미래 신도시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사람과 문화

새로운 공간 창조를 통해 지역과 시대 문화를 풍요롭게 살찌우는 건설 상품도 있다. 풍피두센터와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등은 파리라는 도시의 문

화 아이콘이 되었다. 런던 테이트모던미술관은 화력 발전소를 문화 발전소로 탈바꿈시켜 도시 런던에 예술적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으로 호주를 대표하며, 시카고 트리뷴 타워는 국제주의 양식을 출현시키는 데 물꼬를 텄다. 세인트루이스의 게이트웨이 아치와 같은 랜드마크의 건설은 관광 인프라의 거점이 된다. 독일의 라이히스타크 국회의사당은 관광객과 시민이 항상 붐비는 장소이다.

건설 상품은 인류의 일원인 한 사람의 꿈과 이상으로 탄생한다. 에펠탑은 한 공학 기술자의 신념이 없었다면, 융프라우 등산 철도는 한 사업가의 꿈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문화유산이다. 현재 건설 중인 애플 캠퍼스 신사옥은 디자인에서부터 건설 과정에 혁신적 요소를 총망라해 세계 최고의 창조형 사무 공간을 만들려는 야심을 실현시키는 도중이다. CERIK